

전문지 NEWS 클리핑



◎ 4월 18일부터 동물약품 위·수탁 생산 가능 제품생산 난립, 약화사고 우려... '책임소재' 규정 마련해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간 위·수탁 이른바 OEM 생산이 오는 18일부터 가능해 제품의 난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업체간 위·수탁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공방도 우려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동물약품 시설의 중복투자를 절감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진입을 쉽게 하고 시설의 이용을 높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와 달리 업계는 이번 법률 개정이 자칫 제품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는 부족한 제품군 확보를 위해 위·수탁 생산을 위한 내부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의 관계자는 “주사제 생산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법률상에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에 대한 준수사항만 명시해 놓았을 뿐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위·수탁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약업계의 경우 친환경자재 생산의 위·수탁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의 문제가 발

생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B 동물약품 업체의 임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업체들 간의 이익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kimym@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 2008년 4월 14일

◎ 사료구매자금 1조, 개인평가 통해 등급별 집행 지시

“신용보증 없이 지원한다더니...”

정부의 1조원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계획과 다르게 지원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시 간이 신용조사방법에 의하고 신용보증평가 없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자금 집행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일선 농축협에 지시한 내용은 이와 다르게 신용보증의 경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를 적용해 등급별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평가시스템은 각 해당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고 8개 등급으로 나눠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최대 100%에서 최소 15%까지 등급별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이번 사료구매자금 보증

대상자에 법인이 제외된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료구매 자금이 당초 문제가 많았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

경북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영농조합법인은 엄연히 농가들의 집합인데 이를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영농조합 법인을 장려하면서 이제 와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방법을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kimym@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 2008년 4월 7일

◎ 수입축산물 검사수수료 부과범위 확대

축산물검사수수료 · 검사의뢰기준 개정 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수입식육에 대한 정밀검사 수수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축산물 가공품에만 부과하던 검사 수수료를 수입 쇠고기 등 식육에도 부과해 수입축산물 품목 간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 범위를 현행 최초

수입축산물 가공품에서 과거 정밀검사 부적합 후 재수입하는 축산물, 검사 불합격물품 처리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내·외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의견수렴과정으로 관련부처 협의는 물론 개정안 입안예고 및 축산물수입업체 초청 간담회를 통해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통상마찰 최소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정안을 통보해 각국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개정 고시(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4일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정완 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8년 4월 4일

◎ 옥션, 온라인 쇼핑몰 최초 한우이력제 실시

토종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젠 쇼핑몰에서도 제품의 원산지 등을 알리는 생산 이력제를 강화하면서 안전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 유혹에 나섰다.

옥션(www.auction.co.kr)은 한우 전문 업체

‘산외한우마을’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한우 이력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이제는 백화점, 할인점에 이어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우 이력제란, 축산농가에서의 송아지 탄생과 성장, 도축과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을 구매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건강한 한우인지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심 거래 서비스다.

옥션은 ‘한우 이력제’를 통해 ‘산외한우마을’의 모든 상품 구매시 한우 등급 판정서, 쇠고기 이력내역서를 상품과 함께 배송해 준다.

이력 내역에 표기된 ‘개체 식별 번호’를 통해 구매자는 언제든지 농림부 사이트의 ‘축산물 등급 판정소(http://www.mtrace.net/)’에서 한우 이력을 다시 확인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산외한우마을’의 ‘한우 이력제’는 옥션 단독 서비스로, 옥션은 이를 기념해 정음한우를 40%할인판매하는 이벤트도 31일까지 진행한다. 암소 1등급 500g기준, 등심은 22900원, 한우양념불고기는 8천9백원, 국거리용은 9천8백원에 할인판매한다.

한편, 옥션은 지난해 5월부터 공급자 직접 계약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의 거품을 뺀 품질 좋은 한우를 시중가보다 50~7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1년만에 한우 판매량이 2배가량의 매출성장을 올리기도 했다.

육선 식품 카테고리 담당 고현실 과장은 “구입한 쇠고기가 정말 안전한 먹거리인지 반신반의하는게 현실로, 이러한 소비자의 걱정을 덜어주고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식품안전이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신선식품 이력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동신 기자(a1@livesnews.com)

라이브뉴스 / 2008년 3월 20일

◎ 축산산업계 환율폭등에 호된 몸살

1달러 '1000원 시대'...원재료 수입 의존 동약·사료·기자재업계 경영난 가중

수입창구 다각화·정책 지원 등 대책마련 시급

최근 환율폭등에 따라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큰 동물약품, 사료, 기자재 등 축산산업계가 호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원유로화 환율은 1600원을 넘어서며 환율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 구매를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산업계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산업계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환율 급등세가 어느 시점에서 진정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너나 할 것 없이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원료가격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데다 이번 환율상승은 원가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원가상승 부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나마 수입량을 줄이거나 아예 제품을 단종시키는 등 극단적인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료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상승까지 떠안게 되면 마이너스 마진도 생각해야 할 판이다.

차라리 사업을 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 인도 등 일부국가에서 탈피해 수입창구를 다각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원료의 국내생산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사료와 축산기자재 산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곡물가와 금속류 가격이 치솟는 데다 최근 환율상승까지 겹치자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고스란히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영길 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8년 3월 19일

◎ 동물약품, 생산원가 상승 불구 판매가 인상 못해 '시름'

동물약품업체들이 부형제 등 원료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의 불황으로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동물약품업계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옥수수분, 유당 등 부형제 가격이 크게 올라 동물약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의 불황으로 동물약품의 판매가 저조해 소비자에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물약품 부형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옥수수분의 경우 지난해 말 kg당 670원에서 올해 초 kg당 830원으로 한 두달만에 24%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가루약과 알약을 만들 때 쓰이는 유당 가격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곡물 부산물의 경우는 재고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언.

동물약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밀껍데기인 말분이나 옥수수분 등 부형제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곡물가 상승으로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어 수급도 어려운 상황으로 주원료보다 부형제가 더 비싼 동물약품까지 있는 형편”이라며 “부형제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기가 어렵고 보관장소 확보도 쉽지 않아 자주 구매를 하는 편

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료가 대부분 중국산인 항생제의 경우는 원료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큰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한 공장들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중국산 원료의 가격도 크게 오르는 등 동물약품의 원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축산업계의 불황 때문에 소비자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격 상승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08년 3월 19일